한국의 개미들을 위한   
워런버핏 따라하기

✡ ‘마음가짐’  
‘주식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투자의 결과를 만들어낸다.’  
성공한 투자자의 마음가짐이란 ‘위대한 기업의 주인이 되어 오래 함께하는 것.’  
결과보다는 ‘과정’이, 비법보다는 ‘지혜’가, 정보보다는 ‘상식’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며,

✡ PBR이란  
기업의 순자산가치에 대한 현재 주가의 비율을 수치로 나타낸 것.   
ex) 현재 시가총액 200억, 자본총계 100억  
🡪 주가순자산비율(PBR) = 주가/순자산가치 = 시가총액/자본총계 = 200억/100억 = 2.0  
즉, 주가는 순자산가치의 2배에 거래되고 있다.  
PBR이 1이하인 기업은 자산가치 측면에서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다.  
PBR이 1이하로 떨어진 이듬해에는 반드시 주가가 큰 폭으로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.

✡ ROE란  
자기자본 중에서 회사 전체의 이익 차지하는 비중.  
ex) 주주들이 출자한 돈 1천만원, 회사가 1년간 200만원의 이익.  
🡪 자기자본이익률(ROE) = 이익/자기자본 \* 100 = 200만원/1,000만원 \* 100 = 20  
이 기업의 ROE는 20%.

✡ EPS란  
EPS(주당순이익) Earning Per Ratio  
기업의 순이익을 전체 주식 수로 나눈 것.

✡ PER이란  
Price Earning Ratio.  
주당순이익을 주가와 비교한 것을 주가수익비율, 즉 PER.  
주가가 1만원인데 주당순이익 EPS가 1천원이면 PER은 10.  
주당순이익 ÷ 주가 = 주가수익비율(PER) = 투자회수기간.  
PER의 역수는 주식투자수익률.  
ex) PER 5 🡪 0.2 = 20%

✡ Tip  
5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10% 이상이면 매우 안정적인 수준.  
일반적인 기업의 부채비율이 150% 이하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.

✡ 1등 기업을 사라.  
 1등 기업은 위기에서 더욱 빛난다. 1등 기업은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. 오히려 저가 매수를 위한 절호의 기회다. 평상시에 1등 기업들만 눈여겨보고 있다가 주가가 폭락할 때 사들이기만 해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. 분야별 1등 기업 주식에 관심을 기울이면 독점력 판단의 답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.

✡ 워런 버핏의 우량종목 선택 10계명  
1. 자기자본이익률이 높아야 한다.  
2. 투명하게 경영하는 기업을 선호한다.  
3. 현금화할 수 있는 이익을 내야 한다.  
4. 독점적 사업 분야로 가격 선도자의 입장에 있어야 한다.  
5. 처재가 아니더라도 경영할 수 있는 회사여야 한다.  
6. 향후 기업실적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.  
7.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이어야 한다.  
8. 재고수준이 낮고 자산 회전율이 높아야 한다.  
9. 주주 중심으로 경영해야 한다.  
10. 최고의 사업은 다른 기업의 매출이 늘어날 때 수익을 얻는 기업이다.

✡ 주식을 사기 전에 묻는 5가지 질문  
1. 과연 이 산업은 존재할 것인가?  
2. 성장 속도와 진입 장벽에 대한 평가.  
3. 기업의 이익을 측정한다.  
4. 예상 주가수익비율(PER) 계산.  
5. 계산해 낸 목표주가를 적용하여 잠재적 시가총액과 현재의 시가총액 비교.  
자신이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하라.